

## 윤과 드러난 지방행정체제 개편안

## 광주 1곳, 전남 4곳 인구미달로 통합대상

&lt;동구&gt;

&lt;나주·광양·곡성·구례&gt;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 위원회가 검토 중인 '시군 구 통합기준 연구 용역안'은 현재 확정된 상황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 윤과를 드러내고 있다.

개편위는 조만간 용역안을 확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시군구 통합 기준과 계획 등을 내년 6월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용역안에 드러난 통합 기준= 개편위가 검토 중인 용역안에 따르면 시군의 경우 ①동일한 행정구역 이었으나 읍 또는 출장소가 분리된 지역 ②청사가 다른 시군에 위치한 지역 ③인접 지역으로 통근·통학이 많은 지역 ④특정 시군이 다른 시군의 대부분을 둘러싼 지역 ⑤법률이나 국가, 시도 계획에 따라 동일 발전 권역으로 둑인 지역 ⑥재정 규모가 열악한 지역 ⑦지역내 총생산(GRDP)이 낮은 지역 ⑧인구 규모가 작은 지역 ⑨면적 규모가 작은 지역 등 9가지, 자치구의 경우는

## ■ 통합 기준은

## 복포·무안 인접지역 적용

## 통근·통학 비율 잠재 대상

①, ⑤, ⑧, ⑨ 등 4가지의 통합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단, 시군의 경우 9개의 기준 중 ①~⑤는 한 가지만 해당돼도 통합 대상에 포함되며 ⑥~⑨는 2개 이상 해당돼야 한다.

나아가 인구 규모 기준은 ▲특별시 자치구 27만6000명 이하 ▲광역시 자치구와 일반시 15만명 이하 ▲군 3만3000명 이하, 면적 규모 기준은 ▲특별시 자치구 16.2㎢ 이하 ▲광역시 자치구 42.5㎢ 이하 ▲시군 62.46㎢ 이하로 하고 있다.

이 기준안에 따르면 11개 시군구가 인구와 면적 기준을 모두 충족, 가 열악한 지역 ⑦지역내 총생산(GRDP)이 낮은 지역 ⑧인구 규모가 작은 지역 ⑨면적 규모가 작은 지역 등 9가지, 자치구의 경우는

## ■ 논란 예상

## 소규모 지자체 '흡수' 우려

## 일부선 "획일적 발상" 반발

있다.

이와 함께 광주 동구, 나주시, 광양시, 곡성군, 구례군 5개 시구는 인구 규모 기준에 못 미쳐 잠재적 통합 대상으로 분류된다.

목포시의 경우 무안군과 통합 대상으로 분류됐지만 그와 별도로 면적 기준에 미치지 못해 잠재적 통합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무안군과 통합이 무산되더라도 다른 방안을 찾을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논란 예상=그동안 시군구 통합 논의는 어느 지역에서나 '뜨거운 감자'였다. 그만큼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기 때문이다. 특히 규모가 작은 자치체에서는 통합될 경우 흡수·소멸한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 때문에 이번 기준안도 논의 과

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최근 통합 기준을 담은 용역안에 대한 분과위 내부 회의에서 일부 위원들은 '인구나 면적 등을 통합 기준으로 삼는 건 너무 획일적인 발상'이라며 크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계획=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2월 발족한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는 2014년 지방선거 이전에 지방행정체제 개편 작업을 완료하기 위해 내년 6월까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기본계획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통합 시한은 2013년 6월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통합 기준을 담은 용역안을 놓고 심도있는 검토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위원회 내부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고 지역 이해에 따른 문제점 등이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의견 수렴 작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오는 11월까지 최종 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U대회 남북 단일팀 구성되나

## 국회 구성법안 통과… 민주·인권·평화제전 기대

2015년 광주하게유니버시아드에 남북 단일팀을 구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남북체육교류 증진을 위해 남북단일팀 구성

을 협의하는 내용이 포함된 2015 광주하게유니버시아드 지원특별법안 일부개정안(민주당 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을 제석의원 230명 중 찬성 225명, 기권 5명으로 통과시켰다.

김영진 의원은 국회 본회의 제안 설명에서 "광주하게U대회 등을 통해

등 종합 국제대회에서는 남북단일팀이 구성된 전례가 없다.

이에 따라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남북정상회담이나 장관급 회담 등을 통해 남북단일팀 구성이 논의돼야 하는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만족 많다는 지적이다.

김영진 의원은 "광주 하계 U 대회가 민주·인권·평화의 제전은 물론 남북 평화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이는 광주의 국제적 위상과 도시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광주 남구지역 시·구 의원들이 23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U대회 수영장을 남구에 건립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U대회 수영장 지역 갈등 확전 양상

## 광산 이어 남구 정치인들도 '입지 선정' 가세

2015년 광주하게유니버시아드대회(이하 광주U대회)에 맞춰 신설될 수영장을 놓고 광산구 지역 정치인 및 주민들이 이어 남구 지역 정치인들까지 '입지 사전 결정'을 주장하고 나섰다.

광주시가 비싼 부지가격 등으로 광산구 수완지구 내 수영장 신설 방침

을 변경한 뒤 입지를 남구 송하동 송암공원으로 정하고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간이예비타당성조사(이하 간이예타)를 의뢰했다는 것이다.

광주시는 이와 관련 특장소를 지

정해 간이예타를 의뢰한 것은 잘못이

나 조만간 제출될 용역결과에 따라

수영장 입지를 선정하겠다는 방침에

는 변화가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광산구 수완지구 최초 결

정, 남구 송암공원 간이예타 신청, 입지선정 용역 발주, 지역대학 포함 대상지 제외 등 일련의 과정에서 정보 비공개, 일관적이지 못한 정책 등으로 지역 내 마찰을 부채질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기반시설을 자신의 지역구에 유치하려는 지역 정치인들이 수영장 입지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자치구의 배타적 이기주의 등이 불거져 향후 신규 사업 추진에도 좋지 못한 선례로 남을 가능성도 높아졌다. 광산구와 남구 등이 용역 결과에 불복, 계속 갈등의 불씨가 남을 경우 4년 뒤 치러질 광주U대회의 성공 개최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남구지역 출신 시·구의원들은 이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뜻밖만평

- 김종우



## 올 국감 9월 19일~10월 8일 실시

## 여야 정기국회 일정 합의

여야는 올해 국정감사를 예년보다 한 달 가량 빠른 오는 9월 19일부터 10월 8일까지 20일간 실시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이명규, 민주당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9월 7~8일 이틀간 갖고 9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 등을 처리키로 했다.

새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은 10월 10일, 대정부 질문은 10월 11~17일 기간에 5일간 실시키로 했다.

대정부 질문 분야별 세부일정은 ▲

정치 11일 ▲외교·통일·안보 12일 ▲

경제 13~14일 ▲교육·사회·문화 17일 등이다.

양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위의 인사청문회는 9월 6~7일 이틀간 열린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브리핑에서 "올해는 어느 때보다 빨리 국감을 실시하는 것이 특징"이라면서 "11월 7일까지 상임위 활동을 마무리하고 예결위를 본격 가동하는데 예결위 활동 기간을 한 달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12월 2일까지 새해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정감사 일정이 당겨진데 대해 10월 말 서울시장 재보선을 염두에 두 게 아니냐는 관

측을 제기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우울증”의 한방치료!

누구나 생활 속에서 크고 작은 실패와 상실을 경험하게 되며, 그 결과 일시적으로 우울한 기분에 젖게 된다.

여기서 우울이란 슬프고 침울한 마음으로 인하여 모든 생리 기능이 침체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대부분은 잠시 시간이 지나면 우울한 기분에서 벗어나 다시 정상적인 삶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처럼 좌절 경험에 일시적으로 경미한 우울 기분을 느끼는 것은 매우 정상적이며 또한 자연스러운 일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항상 우울한 상태에서 쉽게 회복되는 것은 아니며 때

로는 점차 악화되어 치료를 받아야 하는 우울증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울한 기분이 정체되어 발산하지 못해 일어나는 증상을 총칭하여 우울증이라 합니다.

우울증은 누구나 삶의 여정에서 빠져들 수 있는 "인생의 높"이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마음의 감기"라고 할 만큼 누구나 인생의 시련기에 경험하게 되는 매우 흔한 질환입니다.

그러나 우울증은 삶과 같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정신장애이기도 합니다.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70531-중-359호

## 자연과 몸을 하나로 만드는

## 경희한의원

사람들은 항상 성공을 향해 바쁘게 달립니다. 그러나 자신의 욕망과 결과가 맞지 않으면 못 견디고 속이 상해하고 병까지 일으킵니다. 이런 목표를 조금만 낫춰 다시 시작해 보십시오. 처음보다 더 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로 자연의 이치대로 살아가는 것이 편안한 삶이며 병을 얻지 않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인 진료가 아닌 환자의 마음을 살피고 어루만지는 가족주치의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료과목: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안·이비인후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침구과

## • 핫병 / 스트레스 질환

- 불안, 초조, 가슴阶层
- 신경성 두통, 불면증, 우울증
- 수험생 집중력 저하

평일 : 오전 9:30~12:30 / 오후 2:00~6:30  
토요일 : 오후 4시까지 진료

TEL 062)365-1541  
광주 서구 화정동 추선회관 건너편

\* 주차장 완비 \* 건물 옆 패밀리 렌터카 \*

화정동 주택은행(추선회관) ◀송정리 ▶돌고개 ▶중앙병원

## 우울증 원인

## (1) 생물학적 원인 - 유전적, 체질적 원인

## (2) 사회적 원인 - 사회에서의 스트레스

## (3) 정신적 원인

- ① 사려 과도나 실의, 비탄 등 정신적인 충격이 장기를 쇠약하게 하고, 그로 인해 氣血의 순행이 저체되거나 습열·식단 등이 정체되어 흡수·배설이 원활치 못 한데서 우울증이 생기게 된다.
- ② 정신적인 요인 중에서도 특히 자기의 뜻을 펴지 못 할 때, 즉 욕구만이 쌀릴 때 우울증이 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평소에 소심한 사람이나 내성적인 사람에게 흔히 나타난다고 하겠다.

## 우울증 증상

1. 계속되는 우울, 불안, 혹은 공허감
2. 절망적인 느낌, 염세적 사고
3. 죄책감, 무가치 혹은 무기력감
4. 성생활을 포함하여 한 때 즐거웠던 일이나 취미 생활에서 의욕 및 흥미상실
5. 불면, 아침에 일찍 깨거나 과다한 수면
6. 식욕 감소나 체중 감소, 과식이나 체중 증가
7. 힘이 없고 피로하며 몸이 처지는 기분
8. 죽음이나 자살에 대한 생각, 자살기도
9. 초조감, 쉽게 짜증남
10. 집중력 및 기억력 저하, 의사 결정을 하는데 어려움
11. 두통, 소화기 장애 또는 만성 통증 등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고 계속되는 신체 증상이 있을 때

## 우울증의 치료

치료원칙은 우울증의 병리기전에 의거하여 물결 한 氣를 순조롭게 순환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여기에 화·담·적의 경증에 따라서 火를 끌어내린다든지 瘦 또는 積을 없앤다든지 하는 방법을 배합한다.

한약처방으로는 소간해울탕, 귀비탕, 온당탕, 보혈안신탕, 조위승청탕, 소요산 등이 많이 활용된다.

침치료는 물체된 기의 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어 치료효과를 더욱 높여준다.

/경희한의원 전 선 형 원장